

제161호

발행일 : 서기 2023년 11월 30일
창간일 : 서기 1969년 5월 1일
재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발행인 : 김석한
편집인 : 김태영
인쇄인 : 김원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우) 0243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홈페이지 : andongkimc.kr
E-mail : andongkimgu@naver.com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종친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대총회를 대과 없이 이끌어 온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지난 11월 21일(음 10.9) 안동 총렬공 중시조 고·비위 시제 봉행을 위해 전국 각처에서 많은 참석과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종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총회 연중행사 중 가장 큰 총렬공 중시조 세일사에, 올해에는 안동부녀회 소속 며느님이신 김정림 안동 시의원을 여성 현관으로 참제 시킴으로써 우리 안동김문 700년 역사의 과거 관습을 과감히 내려놓고 며느님·따님들도 조상님께 헌작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총렬공께서 주벽으로 모셨던 물계서원 복설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안동·예천 지역구 김형동(후안동) 국회의원을 이번 세일사에 현관으로 초청해서 헌작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획기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후손이 참여하시고 안동종친회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제물과 신평양조장 용세 고문께서 보내주신 맑은 제주를 조상님께 올렸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이러한 승조 의식이 안동 김씨 가문을 명문가로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올해는 물계서원 복설 준비를 위해 분주했던 한해였습니다. 서원 부지도 매입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2024년 2월 16

일에는 예천에서 저명한 교수들을 초청하여 물계서원 학술대회도 개최합니다. 또한 예천군에서는 물계서원 기초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 일부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물계서원을 온전히 복원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종친 여러분의 힘과 기지를 발휘한다면 복원은 마침내 이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대총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후손들의 뿌리 교육을 위한 만화를 전 3권으로 제작하여 모바일로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책자로도 배포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1권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회곡리 상고산에 고산정을 복원하는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조님의 유적을 발굴 복원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후손 된 도리로 선조님 현양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두의 노력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안동김문의 숙원사업들을 잘 준비해서 소중하게 가꾸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계묘년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내년의 설계를 멋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1월 일

안동김씨대총회 회장 김석한

회비를 납부해 주신 임원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08.26. ~ 2023.11.29.)

◎ 임원회비(부회장)

- 30만원 : (大)태권(광주), (文)수길(대구)

◎ 임원회비 (이사)

- 20만원 : (典)진회(대구), (副)창호(구로), (文)광목(강서), 영기(구리), (大)태종(광주), (提)태시(천안), 태권(충주), (按)용원(세종), (翼)재화(화성)

◎ 통상회비(일반)

- 5만원 : (按)의회(?), (文)삼회(성북)
- 3만원 : (翼)민우(당진), 철회(인천)
- 2만원 : (?)선창(왕십리)

◎ 찬조금

- 10만원 : (都)정회(의성)

◎ 평생회비

- (翼)수진(동작)

회비 및 성금 계좌번호 안내

※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시어 입금하시고
대총회 02-2244-371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회비(부회장) - 30만원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총회
• 임원회비(이사) - 20만원	
• 평생회비(개인) - 30만원	
• 통상회비(개인) - 3만원 이상	
• 찬조금(개인 및 단체) - 제한없음.	

성금 모금 계좌안내

안동김문의 숙원사업인 물계서원 복원에 따른 부지매입비 모금운동을 전개하오니 우리 후손들은 십시일반의 마음을 담아 다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금 모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356201-04-238325
안동김씨대총회

※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여 입금하시고
대총회 02-2244-371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김문 최초 여성 헌관, 관습의 벽을 넘다.

중시조 충렬공 세일사 봉향(中始祖 忠烈公 歲一祀 奉享)



2023년 11월 21일(화) 충렬공(휘 방경) 중시조 묘소(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능동)에서 안동김씨대중회 김석한 회장을 비롯한 경향 각지의 종친 가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묘년 세일사를 봉향하였다. 구름 한 점 없이 온화하고 청명한 하늘 아래 정갈하게 진설한 제수 앞에 도열하여 집례를 맡은 제례위원회 윤만 위원장(문운공파 회장)의 창홀에 맞춰 삼헌관을 비롯한 제집사 등 모든 참제자, 후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엄숙하고도 경건하게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성을 다해 맡은 의식을 진행하였다.

문운공파 김영환 판서공중회 회장이 초헌관을 맡았고, 안동·예천 지역구인 김형동 국회의원이 아헌관으로 헌작하였으며, 특히 이번 시제에는 안동부녀회 소속 며느님인 김정림 안동시의원이 종헌관을 맡아 우리 안동김문 700년 역사 최초의 여성이 헌작을 하였다. 이번 김 의원의 종헌관 참여는 ‘금녀의 벽’을 허문 안동김문 문화에 중대한 진전이다.

헌관 예를 마친 김정림 의원은 “중시조이신 충렬공(휘 방경) 선조님 시제에서 최초의 여성 헌관으로 참제하게 돼 영광”이라며 “지켜온 관습을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과감히 내려놓으신 김석한 대종회장

님의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봉회 명예회장의 직일에 이어서 김석한 대종회장, 김형동 국회의원, 김정림 시의원 순으로 인사 말씀이 있었다. 묘 전에서는 합동 기념 촬영을 하였으며, 능동재사 마당에서는 차려진 식탁에 삼삼오오 둘러앉아 점심을 먹은 후에 풍산을 회곡동으로 이동,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할머니님 단소의 시제 봉행을 끝으로 금년도 안동 충렬공 고비위 세일사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올해에도 안동종친회에서 제수를 봉납하였으며, 안동부녀회에서 밤이 늦도록 전을 부치고 제수를 고이면서 정성껏 준비했고 올해도 어김없이 신평양조장 용세 고문께서 제주를 보내주셨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굿은일을 마다치 않고 능동과 회곡동 주변 환경 정리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 준 안동종친회 회원과 서울에서 미리 내려와 시제 준비에 수고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종친 모두가 한 혈족임을 확인하는 뜻깊은 날이 되었다. 귀가 길에 대종회장께서 준비한 화장품을 수고하신 안동부녀회원들께 전달하고 모든 참 제자들에게는 안동간고등어를 나눠드리면서 내년을 기약하며 작별했다.

23년 안동 시제 분방기

直日	時到	奠爵	奉爵	司樽	奉爐	奉香	贊引	陳設	大祝	執禮	山神	終獻官	亞獻官	初獻官	회곡 냉평국대부인 단소	終獻官	亞獻官	初獻官	능동 충렬공 묘소	二〇二三年 安東時祭 分榜記
봉회鳳會	형식亨植	태철泰喆	장묵張默	태연泰連	용국容國	재구在九	태신泰信	재교在敎	덕응德應	윤만潤萬	재삼在三	용식龍植	재윤在潤	재용在瑢	회곡 냉평국대부인 단소	김정림	김형동	영환榮煥	능동 충렬공 묘소	
(都)명예회장	(翼)홍보위원장	(翼)대중회 이사	(郡)대중회 이사	(翼)대중회 이사	(按)대중회 이사	(郡)대중회 이사	(翼)대중회 이사	(翼)안동종친회장	(提)대중회 부회장	(文)파종회장	(提)대중회 이사	(提)수도권회장	(典)파종회장	(翼)대중회 고문	회곡 냉평국대부인 단소	(翼)안동시의원	(新)국회의원	(文)판서공중회장	능동 충렬공 묘소	



▲ 좌로부터 법혜스님(제), 재영 고문(익), 태헌 문영공회장(제), 김형동 국회의원, 석한 대종회장(익), 김정림 시의원, 재교 안동종친회장(익), 태영 사무총장(군), 종성 삼소재 종손(익)



▲ 단체 기념촬영

2023년도 안동 시제 향족대 (₩16,250,000-)

2백만원	【익원】 석한 - 대총회장	2,000,000
1백만원 (2명)	【안렴】 형남 - 파총회장 【익원】 재용 - 대총회 고문	2,000,000
5십만원 (3명)	【군사】 준회 - 파총회장 【문은】 영환 - 판서공회장 【서운】 파총회	1,500,000
3십만원 (2명)	【판서】 판서공중회 【문영】 문영공중회	600,000
2십만원 (25명)	【개성】 · 파총회 【군사】 · 파총회 · 칠정문중회 【부사】 · 원호(파총회장) 【문은】 · 파총회 【도평】 · 파총회 · 희중(부울경회장) 【대호】 · 파총회 【제학】 · 파총회 · 덕응(부회장) · 용식(수도권회장) · 백전중중 【안렴】 · 파총회 · 태운(안원군) · 판교공중회 【익원】 · 파총회 · 영수(파총회장) · 성희(부회장) · 영화(부회장) · 효소공중회 · 수원 참의공중중 【정의】 · 파총회 · 수선(파총회장) ■ 본연회(안동 친목단체) ■ 화성 · 수원중친회	5,000,000
1십만원 51명	【군사】 · 대용(용인) · 정희(구리) · 일수(광탄) · 승남(광탄) · 재옥(고양) · 태영(사무총장) · 석봉중중 · 양천중중 · 광탄중중 · 장안중중 【전서】 · 재운(파총회장) 【부사】 · 춘식(대구) 【문은】 · 윤만(파총회장) · 천만(광주) · 상식 · 수길(대구종친회장) 【도평】 · 봉희(명예회장) · 정(수도권회장) · 희운(만취당중손) · 정중(의성) 【대호】 · 태식(보성) 【제학】 · 수도권중회 · 태현(문영공회장) · 한용(청주종친회장) · 법혜스님 · 재삼(사무국장) · 평웅(천안) 【안렴】 · 영만(대총회 고문) · 선희(대총회 고문) · 태용(판교공회장) · 용주(화산군) 【익원】 · 안산 이목종친회 · 태연(사무국장) · 태용(수원참의공회장) · 재영(대총회고문) · 구회(재용고문 子) · 태정(재용고문 孫) · 강식(부회장) · 정목(대총회고문) · 태철(문영공총무이사) · 재원(부산) · 화자(대총회고문) · 옥늬(대구) · 수현(안동소산) · 길희(괴산) · 전침공중회 · 대식 · 재남(대총회고문) · 나주종친회 【서운】 · 진호 【정의】 · 태인(안동)	5,100,000
5만원	【익원】 재택(논산 대총회부회장)	50,000

고려 기원 1106년 승의전(崇義殿) 추계대제(秋季大祭) 봉행



▲제례 봉행을 위해 지정석으로 이동중

2023년 10월1일 오전 11시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승의전로 382-27 승의전에서 개성왕씨 후손, 고려공신 후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 기원 1106년 승의전(崇義殿) 추계대제(秋季大祭)가 봉행되었다.

승의전(崇義殿)은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과 함께 나라를 부흥시킨 현종, 문종, 원종 등 4분의 왕 위패를 모시고 있고, 배신청에는 상락공 김방경(金方慶) 안동김씨 중시조를 비롯한 복지겸(卜智謙), 홍유(洪儒), 신승겸(申崇謙), 유금필(庾黔弼), 배현경(裵玄慶), 서희(徐熙), 강감찬(姜邯贊), 윤관(尹瓘), 김부식(金富軾), 김취려(金就礪), 조충(趙冲), 안우(安祐), 이방실(李芳實), 김득배(金得培), 정몽주(鄭

夢周) 등 16분의 공신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제례악이 울려 퍼지는 화창한 가을 날씨속에 봉행된 제향의 △초헌관 연천군수 김덕현(金德鉉) △아헌관 경주김씨중앙중친회 부총재 김원기(金元基) △중헌관 승의전 전감 왕윤식(王允植) △봉조관 전 승의전 전감 왕기준(王基俊) △분헌관 안동김씨대총회 부회장 김규원(金奎元) 등 15명이 맡아 소임을 다했다. 이번 제향의 배신청에 봉향된 16공신 중 14공신 문중에서 분헌관으로 참례했고 안동김씨에서는 제학공파 규원(奎元)회장을 비롯한 용식(龍植) 수도권회장, 대총회 윤철(雲澈)이사, 용화(容華)이사, 성호(聖浩)제학공파 부회장 등이 참례했다.



▲분헌관 안동김씨대총회 김규원(金奎元) 부회장

승의전 제례는 왕윤선(王鄖善) 집례의 창홀로 초헌관의 ▶점시 ▶영신례 ▶관창례 ▶전폐례 ▶봉조례(진찬례) ▶초헌례 ▶아헌례 ▶중헌례 ▶공신 분헌례 ▶음복수조례 ▶망료례 ▶철변두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향에 용산역에서부터 버스 3대를 대절 해 참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승의전 제례 봉행 후 전사청과 양암제 밖 마당과 벤치에서 한식부페로 오찬(午餐)을 하였다.

‘김방경과 예천 물계서원의 위상’ 학술대회

- 주제 : 김방경(金方慶)과 예천 물계서원(勿溪書院)의 위상
- 일시 :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1:00 ~ 17:30
- 장소 :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 주최 : 물계서원 복원추진위원회
- 주관 : 예천군
- 대상 : 지역주민 150명, 발표자·토론자 등 관계자 30명[총 180명]

시간	식순	내용
	1부순서	• 사 회 : 물계서원 복원추진위원회
1:00~1:30	개회식	• 개회사 : 조 윤 추진위원장 • 격려사 : 김석한 안동김씨대종회장 • 내빈소개 : • 환영사 : 김학동 예천군수 • 축 사 : 김형동 국회의원,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
1:30~1:40	장내정리	• 장내정리 및 기념촬영
	2부순서	• 사 회 :
1:40~2:00	1주제 발표	• 기조강연: 고려후기 김방경의 생애와 위상 (장동익 경북대 명예교수)
2:00~2:25	2주제 발표	• 김방경의 사후 후대 평가와 의의 (홍영의 국민대 교수)
2:25~2:50	3주제 발표	• 물계서원의 설립과 치폐과정 (이근호 충남대 교수)
2:50~3:00	휴식	• 사 회 :
3:00~3:25	4주제 발표	• 김방경 차운부의 주제와 문학사적 의의 (심경호 고려대 명예교수)
3:25~3:50	5주제 발표	• 3현(김구용·김양진·김응조)의 위상과 부모 과정 (신채용 국민대 강사)
3:50~4:15	6주제 발표	• 물계서원의 복원 방향과 콘텐츠 활용 방안 (김기덕 건국대 명예교수)
4:15~4:30	휴식·다과	• 휴식 및 장내 정리
4:30~5:30	종합토론	☞ 좌장 : 채웅석(가톨릭대 명예교수) • 주제 토론 : 배영동(안동대 명예교수) • 주제 토론 : 김형수(한국국학진흥원 국학진흥부 본부장) • 주제 토론 : 김인호(광운대 교수)

학술대회 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종친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안동김문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물계서원 복원에 애정을 보여주신 종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금번 학술대회는 ‘김방경(金方慶)과 예천 물계서원(勿溪書院)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 안동김문 숙원사업인 물계서원 복원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쁘시지만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관광버스 2대 출발 예정이며 참석인원 파악은 1월달에 각 파총회를 통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김씨대종회 사무처

예천군수 물계서원 간담회



2023년 10월 13일(금) 김석한 대종회장님과 영환, 재영, 운만, 태영 물계서원 추진위원 5명은 예천군수와 관계자 등 물계서원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7시 30분 인성하이텍 주차장에서 6인승 승용차에 동승하여 예천군청으로 출발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에서 잠시 차담회로 휴식을 취한 뒤, 예천군의회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30분, 먼저 김홍년 군의회 부의장실에 들렀다. 이어서 조윤위원장님과 김규원위원, 안동종친회 김재교회장이 속속 도착했고, 약속시간인 11시에 맞춰 군수실로 이동, 김학동 군수를 만나 인사를 마치고 회장님께서 준비한 약간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이어진 좌담회에서 《물계서원 재건 건의문》 책자를 배부하며 복원



해야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서원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밝은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점심시간이 돼서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인근 축협 프라자로 자리를 옮겨 오찬간담회를 이어 갔다.

김학동 군수는 예천이 한우의 고장이라며 손수 집계를 들고 구우면서 일일이 접시에 놓아 주기도 하였고, 김홍년 군의회 부의장은 이 고장

의 특산품인 예천술 ‘밀담’을 소개하며 1병을 내놓았는데, 술맛이 좋았다. 아마도 단술이 나는 샘인 예천(醴泉)이라는 지명 유래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대종회장님은 큰일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도 해야 한다며 즉석에서 ‘밀담’ 5백병을 구입하겠다고 약속하고 이 특산품을 물계서원 재건사업에 기여한 종친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다. 오찬을 마친 후 관계자들과 작별하고 감천면 덕울리 서원부지를 둘러보았다. 부지 면적이나 지형이 문경의 근암서원과 비슷하여 근암서원을 롤모델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물계서원 부지 (예천군 감천면 덕울리)



▲물계서원 옛터 (감천면 천향리)

이번에는 물계서원 복원과 함께 문화관광 벨트 라인으로 제시한 수락대(水落臺)를 돌아보며 석관천의 너른 바위를 비롯한 주변 경관을 감상하고, 석송령과 물계서원 옛터를 차례로 둘러보며 기념사진도 찍

으면서 예천에서의 일정을 마쳤다. 이어서 오후 4시에는 안동 서부시장 '함지'에서 김형동의원과 신동보 안동시부시장, 김대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등을 만났다. 이곳에서 회곡막걸리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귀경길에 올라 치악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재영위원님과 태영 사무총장은 죽전휴게소에서 하차하여 귀가했다. 김학동 예천군수의 물계서원 복원이 성공리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희망의 덕담과 의지를 확인하면서 물계서원 복원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실감하는 날이었던 것 같았다. 뻘뻘한 일정을 소화해 주신 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물계서원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11.24 기준)

3천만원	【冀】·석한-대중회장	30,000,000
2억원	【冀】·수원 관결사공중중	200,000,000
1천만원 (5명)	【都】·봉회-명예회장 【文英】·문영공중회 【文】·파중회 【冀】·파중회 ·수원 참의공중중	50,000,000
5백만원 (11명)	【郡】·준회-파중회장 ·파중회 ·광탄중중 【부울경】·부산.울산.경남중친회 【文】·영환-충렬공기념사업회장 ·참의공중중-완주 【按】·파중회 ·형남-파중회장 【冀】·목사공중중 ·부령공중회 ·효소공중중	55,000,000
3백만원 (6명)	【郡】·평택자산공중중 【文】·경기광주문중 【都】·파중회 【提】·파중회(생원공) 【冀】·효헌공중중 ·실경-전대구중친회장	18,000,000
2백만원 (7명)	【郡】·장안중중 【文】·포천벌제공중중 【安東】·중친회 【安】·파중회 【冀】·재용 고문 ·재남 고문 ·문정공중회	14,000,000
1백만원 (32명)	【郡】·성목-인천 ·재이-강진 ·중회-부산 ·태영-사무총장 【典】·재운-파중회장 【文】·윤만-파중회장 ·왕용-포천 ·용구-광진 ·영옥-광주 ·음성공중회 【都】·항회-대구화랑 ·수도권중회 【大】·파중회-보성 【提】·태현-문영공회장 ·수도권중회 ·규원-파중회장 【按】·영만-진천 ·철회-안양 【冀】·윤목-효소공회장 ·영수-파중회장 ·태신-중구 ·재택-논산 ·재영-수원 ·강릉중회 ·수돈(영흥사) ·영화 ·화자 ·옥늬-대구 ·성희-부여 ·강식-하남 ·수원 봉직랑공중회 ·관식-인천	32,000,000
7십만원	【文】·수길-대구중친회장	700,000
5십만원 (18명)	【文】·동철-이천 ·재극 ·재관-음성 【都】·정-수도권회장 ·원중-법무사 【大】·태권-파중회장 【提】·용식-의정부 【正】·태형(성립)-춘천, 【冀】·주식-영주 ·진섭-대구 ·태철-수원 ·진수-동대문 ·태연-인천 ·수인-고창 ·형식-안산이목중친회 ·관찰사공중중-동두천 ·인회-강릉 【골프】·안동골프회	9,000,000
3십만원 (21명)	【郡】·재근-부안 【典】·헌덕-대중회 감사 【副】·규훈-철원 【文】·영운-廣州 ·재만-대구 ·재원-포항 【提】·재삼 ·석웅 ·태완-천안 【都】·회수-중랑 ·희운-대구 ·창회-의성 【按】·사부-청주 【冀】·동화-석한회장 子 ·광일-안동 동수 子 ·원회-논산 재택 子 ·근식-동대문 ·경식-이천 ·태용-용인 ·선희-당진 ·나주중친회	6,300,000
2십만원 (19명)	【郡】·발용-하남 【文】·태경-구로 윤만 子 ·천만-廣州 ·증평도사공중중 【都】·옥수-파중회장 ·시걸-부산 ·정수-동대문 ·태성-사촌 【提】·덕웅-공주 ·태영-수원 【冀】·하경-석한회장 女 ·호목-대구 영화 子 ·재진-당진 ·종빈-의정부 영수회장 子 ·재천-홍천 ·재교-안동회장 ·정목-전 대구회장 ·우회-논산 재택 子 【?】·재선-?	3,800,000
1십5만원	【冀】·진현-안동	150,000
1십만원 (37명)	【郡】·대용-용인 ·만희-파주 ·필구(범직)-홍성 ·준용-인천 【典】·진희-대구 【文】·재성-음성 ·태식-도봉 ·동호-양주 윤식 父 ·윤식-양주 ·태길-안산 ·신목-남양주 ·호길-대구 ·윤희 ·윤정 ·윤미-대구 재만 子女 【都】·재수-의성 【大】·재남-나주 ·태중-광주 【提】·윤철-성북 ·대응-천안 【按】·봉진-성남 【冀】·태진 ·태경 ·진경-석한회장 孫 ·보희-수원 재영 子 ·선희-강화 ·철희(예천) ·경민-대구 ·루아-영화 부회장 子女 ·기범-동대문 ·홍교 ·시교-대구 ·선교-수원 ·동수 ·지원 ·태은-논산 재택 孫 【正】·수진-남양주	3,700,000
5만원	【文】·동목-음성 【提】·재응-광진	100,000
3만원	【按】·태길-은평 ·영화-청주	60,000
	합계	422,810,000

안동김씨 판서공종회 김영환 초대회장 선출



- ▲ 뒷줄 좌측부터 이경(개성윤공파회장), 윤만(문온공파회장) 준회(군사공파회장), 장묵(감사, 군사공파) 재형(밀직사공파회장), 재윤(전서공파회장)
- ▲ 앞줄 좌측부터 흥기승(한일타워회장), 영환(文, 판서공회장) 태헌(提, 문영공회장)

안동김씨 판서공(휘 선)종회는 10월 27일 오전 11시 종로 한일타워 3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총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장 김영환 대종회 고문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임원 및 후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영 대종회 사무총장의 진행에 의해 지난 10월 5일 휘경동 대종회관에서 9

개 파종회장이 참석한 발기인 총회를 통해 초대회장으로 내정된 문온공파의 김영환고문과 감사로 내정된 군사공파의 김장묵 총무이사, 전서공파의 김태성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인 선출하였다.

김영환 회장은 등단하여 판서공종회 회장 추대를 수락하고 선출된 감사의 동의를 구한 뒤, 새로 제정된 회칙 조항을 일일이 추인을 받고 나서 9개 파에서 인원수에 비례해 내정된 22명의 이사를 임명하여 새로운 체제로 이끌어갈 판서공종회의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김영환 회장은 총무이사에 군사공파 재이(在二)씨를 임명하고, 문온공파 천만(千萬)씨는 총무와 재무이사를 겸하여 임명했다.

이날 문온공파 김윤만회장은 판서공(휘 선) 약사를 소개하고, 내빈으로 판서공 아우님 종회인 문영공종회 태헌(泰憲)회장과 태철(泰喆)총무이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문영공(휘 순) 세일사 봉향



2023년 11월 19일(일) 오전 11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533-7, 문영공 묘소에서 문영공종회 김태헌 회장, 안동김씨대종회 김석한 회장을 비롯한 후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문영공(文英公, 諱 恂)할아버님과 제평군부인 양천허씨 할머니의 묘역에서 계묘년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규원(奎元, 提) 제학공파종회장, 아헌관 태영(泰榮, 郡) 대종회사무총장, 종헌관 철회(喆會, 按) 대종회고문, 찬인 대신(泰信, 翼) 대종회 이사, 집례 태철(泰喆, 翼) 문영공 총무이사, 대축 덕응(德應, 提) 대종회 부회장, 진설 안회(安會, 翼), 봉로 재삼(在三) 제학공 사무국장, 봉향 태연(泰連) 익원공사무국장, 사준 풍회(豐會, 翼), 봉작 용주(容周, 按) 대종회 이사, 전작 은회

(恩會, 翼), 시도 석응(石應, 提) 재무이사, 직일 선회(璇會, 按) 대종회 고문 등이 수고해 주셨다.

문영공종회 태헌 회장은 참례하여 주신 많은 종친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석한 대종회장은 안동 총렬공 할아버님 시제에도 많은 참석을 바란다는 인사를 끝으로 세일사를 모두 마쳤다. 경모재에서 점심식사 후 답례용 선물을 나누어 드렸다.

문영공 김순(金恂, 1258~1321)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귀후(歸厚). 김방경(金方慶)의 셋째아들이다. 1279년(충렬왕 5)에 과거에 급제하여 낭장(郎將)으로 학사(學士)·직강(直講)이 되었다. 아버지 김방경이 일본을 정벌할 때 종군하고자 했으나, 허락하지 않으므로 몰래 배에 올라 종군하고 돌아와서 전중시사(殿中侍史)가 되었다. 성균재주(成均祭酒)·보문각학사(寶文閣學士)를 역임했으며, 다시 삼사좌사(三司左使)를 거쳐 밀직부사(密直副使)가 되어 사직했다. 충선왕이 왕위에 오르자 다시 등용되어 1312년(충선왕 4)에 중대광(重大匡)·상락군(上洛君)에 봉해졌으며, 1316년에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올랐다. 성격이 관후하고 예서(隸書)를 잘 썼으며, 거문고와 통소를 즐겼다. 시호는 문영(文英)이다.

- 문영공종회 총무이사 태철 -

대종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동김씨대종회에서는 대종회보(종보)를 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파종회와 종친들께서는 종인들의 미담이나 선조님들의 사료 발굴자료,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자랑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신고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제출마감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우편, E-mail: andongkimgu@naver.com
- ◎ 자료제출 : 원고와 사진 등
- ◎ 제출처 : 대종회사무처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1
- ◎ 연락처 : 전화 (02)2244-3717, (02)2244-3710
팩스 (02)2243-1073

김영수 삼도수군통제사 '중양제' 봉행



2023년 10월 23일 오전 8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 861번길 47-18, 청덕사(淸德祠)에서 내빈을 비롯한 30여명의 유림 및 후손 김승남(金勝會, 전 광탄중중 회장), 김준회(金俊會, 군사공파중회 회장), 김만회(金晩會, 광탄중중 부회장), 김일수(金溢洙, 광탄중중 총무) 등이 참여(參詣)한 가운데, 권무정(勸武亭) 유림의 주관으로 김영수(金永綬) 삼도통제사를 기리는 237주기 중양제(重陽祭)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날 제례 봉행은 흥해향교 최재락(崔在洛) 전교가 집례를 맡았으며, 백강석(白剛碩) 흥해농협조합장이 초헌관을, 박경렬(朴慶烈) 권무정 사두가 아헌관을, 김일수(金溢洙) 안동김씨 군사공파 광탄중중 총무가 종헌관으로 헌작을 올렸으며 이정희(李楨熙) 권무정 고문이 독축을 하였다.

청덕사는 조선 영조 때에 흥해군수로 부임하여 왜구의 잦은 약탈에 대응하고자 권무정(勸武亭)을 창설했고, 또한 해수의 범람과 가



뭍을 극복하기 위해 9개의 제방을 쌓아 비옥한 농토로 흥해군민을 지켜낸 김영수(金永綬)군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흥해 백성들이 청덕사를 세워 매년 중양절(음 9월 9일)에 제사를 지내고 활쏘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영수(金永綬, 1716~1786)의 처음 이름은 영적(永績), 자는 중약(仲若)이다. 수안군사(遂安郡事)를 지낸 김칠양(金七陽)의 후손으로 의영고직장 홍석(弘錫)의 아들이며 조부는 청백리 안주목사(安州牧使) 두남(斗南)이다. 갑자무과(1744)에 급제하고 병인중시(1746)를 거쳐 가선대부에 올랐다. 흥해군수(지금의 포항)와 김해부사, 전라우·좌수사를 거쳐 함경도병사·경상좌병사·제주목사·충청도병사를 역임하고 삼도통제사에 부임하여 통영임소에서 순직하였다. 무인(武人)이면서도 문인(文人)의 소양을 갖춰 많은 시문과 필적을 남겼다.

김영수(金永綬, 1716~1786)의 처음 이름은 영적(永績), 자는 중약(仲若)이다. 수안군사(遂安郡事)를 지낸 김칠양(金七陽)의 후손으로 의영고직장 홍석(弘錫)의 아들이며 조부는 청백리 안주목사(安州牧使) 두남(斗南)이다. 갑자무과(1744)에 급제하고 병인중시(1746)를 거쳐 가선대부에 올랐다. 흥해군수(지금의 포항)와 김해부사, 전라우·좌수사를 거쳐 함경도병사·경상좌병사·제주목사·충청도병사를 역임하고 삼도통제사에 부임하여 통영임소에서 순직하였다. 무인(武人)이면서도 문인(文人)의 소양을 갖춰 많은 시문과 필적을 남겼다.

-김만회 안동김씨 군사공파 광탄중중 부회장-

요동백 충무공 김응하장군 추계제향 및 문예공모전 시상식



강원 철원군은 9월 26일 철원읍 화지리 포충사에서 '요동백 충무공 김응하장군 추계제향'을 봉행했다. 포충사는 김응하장군의 무훈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사당으로 이날 추계제향 봉행에는 정문걸 철원 교육장을 비롯해 각급 기관장, 유림, 문중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기 1618년 명나라의 건주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조선에 원군을 요청했는데 당시 좌영장으로 출전해 3천여 병력으로 6만의 적군과 싸우다 40세에 전사했다. 이듬해 명나라 신종(神宗)이 그 보답으로 요동백(遼東伯)에 봉했다.

조선에서는 김응하장군을 영의정에 추증하고 충무공(忠武公)의 시

호를 내려 철원의 포충사(褒忠祠), 선천의 의열사(義烈祠) 등에 배향하였다. 철원군민들은 김응하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춘추(春秋)로 1년에 두 번 제향을 지내고 있다.

이날 제향의 분정은 다음과 같다.

- 초헌관 정문걸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 아헌관 한종문 철원군의회 부의장,
- 종헌관 엄기호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묘사 김동관 • 집례 이주섭 • 찬인 조성진 • 대축 김태룡
- 알자 최창배 • 봉향 김재경 • 봉로 김영수 • 봉작 박은숙
- 전작 오미현 • 사준 신혜정 철원향교 장의

한편 철원포충사 전현일 원장은 충무공 김응하 장군 탄신 443주년을 기념하고자 제4회 충무공 김응하 장군 문예 공모전을 개최하여 이날 제향에 앞서 시상식을 하였다.

총 177건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초등부 시, 산문, 시화, 그림 부문에서 42명, 중고등부 수필 부문에서 3명, 일반부 수필 부문에서 5명, 지도교사상 4명, 총 50명이 수상했다

전현일 원장은 “충무공 김응하 장군 문예 공모전에 참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공모전을 통해 충무공 김응하 장군의 선양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은 참석자 소개,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호국영령 묵념, 공모전 경과보고, 수상자 시상, 전현일 원장의 환영사, 이현종 군수·정문걸 교육장·한종문 철원군의회 부의장·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충무공 김시민장군 탄신 제469주년 기념식 성료



충무공 김시민장군 탄신 제469주년 기념식과 문화공연·통일 문예공모 시상 등 다양한 행사로 지난 23일 시청 봉서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사단법인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법혜스님)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 박상돈 천안시장, 이명수·문진석·이정문 국회의원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 안동김씨 대종회 임원, 육군 32사단 군악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안동김씨대종회 김석한회장(학교법인 대주학원 이사장)은 격려사와 제7회 대한민국호국충절선양봉사상을 수상했다.



7회 통일문예현상공모 전체대상 통일부장관상은 조현길 문인협회 회원이 차지했다.

일반부 최우수상 충남도지사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조남숙 수필가와 울산시 거주 손현명 현대차 사원이 각각 수상했다. 문화공연으로는 전남 진도 남도민속놀이문화예술단(김오현 단장) 단원 40여 명이 '김시민 장군 천안에 태어나다'를 주제로 무대에 올랐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는 김시민 장군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김시민 장군 유허지 정비 사업을 비롯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승격, 생가지, 충렬사 복원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념사업회 회장 김법혜 스님(사진)은 "469년이 넘도록 잊지 않고 매년 장군님의 탄신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김시민장군께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업적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군께서 몸소 실천하신 애국충혼과 희생정신이 임진왜란 승리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이다"며 "김시민 정신 계승으로 충청남도과 천안

시의 정신문화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김시민장군 선양사업에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무공 김시민장군 탄신제 봉행

한편 기념식에 앞서 9월16일 11시 천안 병천 영모재에서 (사)충무공 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 법혜 스님) 주최와 제학공파종회(회장 규원) 주관으로 충무공 김시민장군 제469주년 탄신제를 봉행하였다.

충무공의 업적을 기리는 탄신제(고유제)의 분정은 초헌관 제학공파종회 규원회장, 아헌관 수도권충친회 용식회장, 종헌관 생원공종중 세웅회장, 집례 청주충친회 한용회장, 대축 부평공종중 덕웅회장. 직일 전대종회 남응회장, 찬인 제학공 평응감사, 집사 죽계공종중 윤철회장 등 종중대표들이 맡아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날 사회는 제학공파 재삼사무국장이 수고해 주었다.



이번 탄신제는 매년 유허지에서 봉행 하다가 우천 관계로 영모재에서 봉행 하였는데 제학공 종인 50여명. 기념사업회 간부 10여명. 예술단 10여명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조상에 덕을 기렸다.

한편 충무공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김시민장군 사당인 충렬사 건립, 유허지 정비 사업을 비롯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승격, 생가지 복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제학공 종중들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남응 고문님의 격려사를 통해 충무공김시민 할아버지 선양 활동에 수고하는 김법혜 회장님께 감사하고 충무공 김시민정신 계승 이 충청남도과 천안시의 정신문화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충무공 선양사업에 많은 종인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유림대상'에 동천 김창회 대종회 고문



2023년 10월 9일 경북유교문화회관 교육관에서 이 시대 마지막 참선비로 추앙받는 안동김씨대종회 고문이신 동천 김창회 선생이 '경상북도 유림대상' 첫 수상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성균관유도회 경상북도본부가 유학 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과 실천적 유림 인재를 발굴해 윤리도덕심 함양과 전통문화의 위상 정립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상이다.

이 자리에는 이재업 성균관유도회 경북도본부 회장과 정상영 경북

향교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유림단체장과 경북지역 종손, 여성유도회원 등 유림관계자 등 400여 명도 함께했다.

유림대상 첫 수상자로 선정된 김창회 선생에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명의의 상장과 이재업 회장의 감사장이 전달됐으며, 안동김씨대종회 김석한회장과 김봉회 명예회장의 축하 화환과 가족. 유림 관계자들이 축하의 꽃 다발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4일 유림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배영동 안동대 교수)는 심사를 열어 도남서원을 비롯해 임고서원, 병계서원 원장과 성균관부관장을 역임하면서 영남 유림의 정통성을 전국에 알린 공적을 높게 평가해 동천 김창회선생을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

동천 김창회(金昌會, 1935) 선생은 조선후기 영남 유학을 대표하는 천사(川沙) 김종덕(金宗德)선생의 7대 후손으로 의성도서관장, 의성향교 전교, 의성신문 주필, 임고서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동천산고》, 《동서명언선집》, 《대추꽃 예찬》, 《넓은 세상 좁은 마음》, 《빛지고 저승에 가기 싫다고 한 시골노인》등 많은 저서가 있다.

익원공 제616주기 부조묘 제향 봉행



2023년 9월 13일(수, 음7.29) 13시, 전북 고창군 공음면 갑촌길 20, 도암서원 내 부조묘(不祧廟)에서 익원공(翼元公) 제616주기 불천위 제향이 영수(榮秀) 익원공파총회장을 비롯한 석한(錫漢) 대총회장, 재영(在永) 고문, 영환(榮煥) 충렬공기념사업회장, 태영(泰榮) 대총회사무총장 등 90여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초가을 간헐적으로 내리는 가랑비속에서도 고창에 세거하는 부령공 후손들은 묘당 앞에 제사에 지장이 없도록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제수와 음복 등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만반의 제사 준비를 해주었다. 집례를 맡은 태철(泰喆) 대총회 제례위원의 홀기(笏記)에 맞춰 부령공 종회 경회(京會)회장이 초헌관을 맡고, 충렬공기념사업회 영환(榮煥) 회장이 아헌관을, 대구충친회 중묵(鍾默) 전 회장이 종헌관으로 헌작을 하였다. 제례 봉행 후 이어진 직일평(直日評)에서 석한(錫漢) 대총회장은 물계서원 성금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물계서원 복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는 당부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충렬공기념사업회 김영환 회장은 강리도를 제작하신 익원공 할아버님의 업적을 되새기며, 강리도가 그려진 날자를 기념하여 9월 첫째 토요일을 '지도의 날'로 제정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영수(榮秀) 익원공파총회장은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전국 각지에서 부조묘 제향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매년 제향 때마다 제주(白蓮酒)를 보내 주신 당진의 신평양조장 용세(容世) 고문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다 함께 기념촬영을 마치고 다과를 곁들인 음복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영수(榮秀) 익원공파총회장은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전국 각지에서 부조묘 제향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매년 제향 때마다 제주(白蓮酒)를 보내 주신 당진의 신평양조장 용세(容世) 고문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다 함께 기념촬영을 마치고 다과를 곁들인 음복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分定	名	備考	分定	名	備考
初獻官	경회(京會)	부령공종회장-部	奉爐	경현(炅炫)	고창-部
亞獻官	영환(榮煥)	충렬공기념사업회장	奉香	태연(泰連)	사무국장-孝
終獻官	중묵(鍾默)	전대구총회장-牧	司樽	권회(權會)	당진-文
大祝	항묵(恒默)	춘천-文	奠爵	기홍(起弘)	고창-部
執禮	태철(泰喆)	제례위원-文	時到	수인(洙寅)	고창-部
贊引	태신(泰信)	제례위원-牧	直日	석한(錫漢)	대총회장-典
陳設	일수(一洙)	고창-部			

<기사제공> 안동김씨대총회 이사 제례위원 김태철

■ 김사형(金士衡, 1341~1407) / 조선개국공신
1399년 우정승으로 건문황제의 등극을 축하하는 사절로 명나라에 다녀와 상락백(上洛伯). 판문하부사가 되었으며, 태종이 즉위한 뒤에는 의정부 좌정승(左政丞)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인 1402년에 이무(李茂), 이회(李薈) 등과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제작에 진두지휘 했다.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가 되고,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에 봉해진 뒤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1407년 졸서(卒逝)한 뒤 익원(翼元)의 시호가 추증되었다.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좌정승 김사형은 1399년 건문 황제의 등극사로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입수한 두 종류의 중국 본 지도와 일본지도 등을 기초로, 우정승 이무(李茂)와 함께 지도 제작을 기획하였다. 「팔도도(八道圖)」를 그린 경험이 있는 의정부 겸사 이회(李薈)를 참여시켜 이슬람 계통의 지도 제작법까지 동원하여 중국을 포함한 조선과 일본 및 당시 알려진 구대륙 아라비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그리게 하고 참찬 권근(權近)에게는 발문을 쓰게 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세계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를 탄생시킨 것이다.
'혼일(混一)'이란 '하나'라는 뜻이고, '강리(疆理)'는 나라를 뜻한다. 넓은 세계를 몇 자의 비단위에 표시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세계지도를 뜻한다.

제616주기 익원공(휘 사형), 제587주기 밀직사사공(휘 승) 세일사 봉향



2023년 11월 18일(토요일) 11시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49번지 익원공 묘역에서 100여 명의 종친의 참제하에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올리고 질서있고 경건하게 향사가 봉행 되었다.

익원공파총회 영수회장께서 익원공 할아버님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선조님이라는 설명이 있으셨고 문영공 태현 회장께서 축사가 있으셨다. 석한 대총회장께서 갈수록 제례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이 적어지는것에 대해 아쉬움을 말씀하시고 중. 장년층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총회에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다. 또한 물계서원 복원 진행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셨다.

우리 종인들 모두가 하루속히 물계서원이 복원되기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질서있고 경건하게 제례 행사를 모두 마치고 재실인 낙포재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나누면서 종친간의 화기애애한 담소로 조상님들의 음덕을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翼元公(諱 士衡) 分榜]	[密直司使公(諱 陞) 分榜]
初獻官 允默 효소공회장	初獻官 京會 부령공회장
亞獻官 泰憲 문영공회장(提)	亞獻官 容國 안림사공파 사무국장
終獻官 在萬 부회장 전침공	終獻官 正默 목사공 전 대구충친회장
집례 泰喆 문수원. 대축 亨植 문인천. 찬인 泰信 목서울. 진설 在權 문수원 사준 豐會 효남양. 봉로 在正 문수원. 봉작 容浩 문모현. 전작 恩會 문수원 시도 泰連 효부여. 직일 在瑒 문수원	

-익원공 사무국장 태연-

익원공파 전침공(諱 宗潤)세일사 봉향



2023년 10월 15일 (음력 9월 1일 일요일) 오전 11시,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선영에서 안동김씨 대종회 김석한 회

장님을 비롯한 후손 2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익원공파 전침공(諱 宗潤), 감찰공 (諱 琛), 청안 현감공(諱 善孫), 형조좌랑공(諱 淡)의 세일사를 엄숙히 봉향하였다.

산신제는 재택, 성회, 충식, 대회가 올리고 초헌관 연묵, 아헌관 성회, 종헌관 태현, 집례 재만, 축관 충식, 좌집사 대회, 우집사 종빈, 찬인 재도, 직일은 익원공파종회 영수회장이 맡았다.

이날 대종회장 김석한, 김연묵 내외분, 익원공파 김영수, 김종빈, 김영희, 김재만, 김재도, 김태현, 김대회, 대종회 부회장 김성희, 천공석재 신중균사장, 이사 이상훈, 전침공 김재택회장 부부, 총무 김충식 부부 등 후손 20여명이 봉향을 마치고 김석한 대종회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서 전침공파종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부회장에 김연묵씨를 선출하고 참제한 후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종친간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 전침공 종친회 총무 김충식 -

익원공파 충민공종회 선조님 세일사 봉향



2023년 10월 22일(음력9월8일 일요일)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산성 1길 5

충민공(忠愍公) 재실에서 김수희 부부를 비롯하여

김수찬 김오식 김중희부부 김상만부부 김인회 김태신 김재택부부 등 2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전사과공(휘 濂), 충의위 전력부

위공(휘 承碩), 청주목사 시 충민공(휘 欽) 선조님을 비롯한 여러 조상님들의 세일사를 봉향하고 시제를 마친 후에는 충민공종친회 정기총회를 열고 작고하신 김재관(金在寬) 회장 후임으로 김구희씨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고 총무 김태인씨는 재임하였다. 참석한 종친간에 음복을 들며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김수찬, 아헌관-김상만, 종헌관-김중희, 찬 인-김재택, 축 관-김수희, 봉 로-김인회, 봉 작-김오식, 산 신-김태신

- 충민공종친회 총무 김태인 -

문경공(文敬公) 세일사 봉향



2023년 11월 02일 (목) 대구광역시 동구 송정동 장등산 문경공 선영에서 문경공종회 종목회장을 비롯 20여 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공(휘 수동) 할아버님 세일사를 봉향하였다.

이날 초헌관에 태신 대종회이사(익원공부회장), 아헌관에는 영화, 종헌관에는 재준, 집례는 정묵 대종회고문, 대축에는 영화 대종회 부회장(목사공부회장)이 맡아 수고해 주었다. 종목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모두는 조상을 숭배하고 종친과 문중을 사랑하는 숭조상문

(崇祖尚門)이라며 단합된 문중으로 화목하고 문경공 현양에 노력하는 부탁과 함께 늘 잊지 않고 제주(祭酒)를 보내주시는 신평양조장 용세 고문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다.

문경공(文敬公)의 휘는 수동(壽童, 1457~1512)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미수(眉叟), 호는 만보당(晩保堂). 상락부원군 김사형의 후손으로, 여주목사 김적(金積)의 아들이다. 18세에 생원시에 합격했고, 21세인 1477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청요직을 두루 거치고 성절사로 명나라에 가서 『성학심법(聖學心法)』 4권을 구해 왔다. 이조판서·좌의정에 오르고 정국공신 2등에 책록되어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에 봉해지고 영의정에 올랐다. 시호는 문경(文敬)이고 신도비는 신용개가 찬하고 김희수가 썼다.

-김정묵 대종회 고문 -

2023년(신라기원 2080년) 송혜전 추분 능향대제 봉향



▲내물왕 능향대제

선덕여왕과 29대 태종무열왕등 우리 김문의 특히 업적이 뛰어난 대표적인 선왕들을 기리는 제향으로서 능 앞에서 봉행되고 있다. 봉행은 송혜전 경모재 마당에서 헌집분정을 한 후 사축과 헌관하례 개복 등을 한 뒤 대릉원 안에 있는 미추왕릉으로 이동하여 추향대제를 지내

고, 이어 계림 옆에 있는 내물왕릉에 봉제한 다음, 점심 식사를 한 후 선덕여왕릉과 태종무열왕릉에서 각각 추향대제를 하는 순서로 봉행되었다. 이번 능향대제가 작년과 달라진 것은 봄에 있었던 송혜전 춘향대제처럼 예약이 함께 하였다는 점이다. 미추왕릉과 내물왕릉 추향대제는 경주김씨가 주관하여 헌관을 맡아 봉행하였고, 선덕여왕릉 추향대제는 여성들이 헌관을 맡아 봉행 하였으며, 태종무열왕릉 추향대제는 강릉에서 온 강릉김씨들이 헌관을 맡고 주관하였는데 제향준비는 송혜전 참봉단과 경주김씨 경주종친회원 및 경주김씨 경주부녀회원님들이 수고를 해 주셨다. 그리고 경주김씨 직할 청년회가 있어 각종 행사진행 등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춘향대제는 3월 21일에 송혜전에서 봉행 되었고, 계림세묘 진평왕릉 춘향대제는 4월 29일에 봉행 되었다.

- 김재교(안동종친회장, 송혜전 이사) -

2023년도 제14회 대전효문화축제 충남북.대전종친회 참석



우리 문중의 뿌리를 찾고, 효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제14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가 대전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100여개 성씨 문중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문화축제는 국내 유일의 성씨 테마공원인 중구 침산동 뿌리공원에서 '대대손손 함께해효(孝)'를 주제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열렸다. 14일은 오전 10시부터 100여개 문중과 취타대와 함께한 어가행렬 퍼레이드는 장엄한 모습을 연출했으며, 우리 안동 김문도 118번째로 깃발을 들고 입장하였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3일간 여정을 마치고 폐막에 앞서 김광신 대전시 중구청장은 "자신의 뿌리도 찾아보고 효의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축제로 육성하는데 더욱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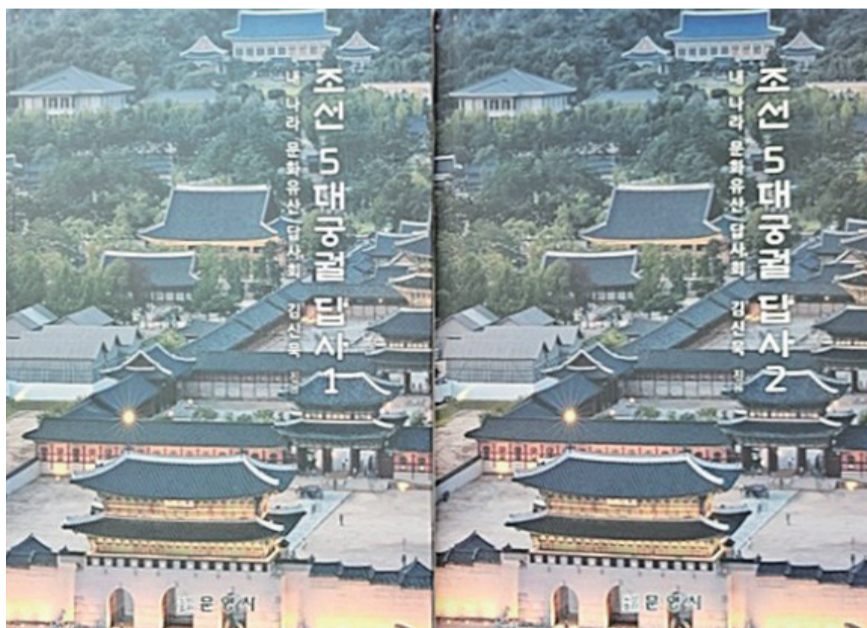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안동김문에서는 효소공종친회와 부여 장령공종친회 김태홍 회장, 김성희 부회장, 김돈희씨 외 9명, 김수희, 김재택 부부가 개막 행사에 참석한 뒤 이어서 안동김씨 조형물을 돌아보고 기념사진 촬영 뒤 식당에 모여서 즐거운 담소로 돈독의 시간을 가졌다.

- 논산종친회 총무 김재승 제공 -

김신묵, 조선 5대궁궐 답사 I · II 발간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산실이었던 수도 서울의 궁궐, 누구나 알고 싶어 했지만, 쉽사리 알기 어려웠던 공간...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회' 김신묵(金臣默)회장은 서울 4대문 안에서 편안하게 시간 여행을 이끌어줄 안내서 「조선 5대 궁궐 답사」 1, 2권을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수도 서울의 5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을 창건하게 된 역사와 궁궐에 관한 기초 상식을 소개한다.



조선의 궁궐 / 김신묵

근대에 들어와 몇 차례 수도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의 서울은 고려 때 남경이었으며 조선 500년 동안 한 나라의 수도로 유지되었다. 더 멀리는 한성백제 때 서울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검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의 서울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면 서울이 한 국

가의 수도였던 시기는 1500년을 넘나드는 것이리라.

백제는 사라진 역사가 많고 남겨진 흔적은 적으며 고려는 남북 분단으로 북한에 위치하고 있으니 조선왕조 오백년과 해방 후 지금까지의 서울만으로 좁혀지는 제한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서울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우리 민족 역사의 거대한 중심지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36년간 일제식민지를 겪었으며 해방 이후 근대국가 건설에 따른 도시화로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지금의 서울 곳곳에는 오랜 역사의 흔적과 문화유산들이 제법 많은 편이다.

특히 조선왕조 오백년 동안 사용되었던 궁궐 5곳과 관련된 유적들이 비록 많은 훼손이 있었지만 다시금 복원되고 잘 관리 유지되고 있어 다행이며 오백년, 육백년을 거슬러 돌아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문화유산 답사의 큰 이득이다.

그러나 궁궐을 찾는 많은 이들이 각각의 전각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나 이름 지어진 고유 명칭의 본래 의미와 시간 흐름 속에 어떤 변곡과 사건들이 깃들여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듯 하여 조선의 5대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은 물론 종묘, 사직과 문묘(성균관), 무묘(관왕묘)까지 포함하여 답사를 위한 상세한 안내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내문답(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회)에서 여러 차례 궁궐답사를 진행하면서 함께 하는 이들이 궁금한 점은 무엇이었고, 어떤 방식의 설명과 조언이 효과적인지를 여러번 느끼면서 이를 종합정리하여 책으로 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사랑하며 자부심으로 직접 찾아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 시켜 나가고자 한다.

■ 김신묵(金臣默, 1956) 저자는 문온공(휘 구용) 후손으로 서울에서 출생하여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였다. 현재 조선일보 시니어 명예 기자와 브라보 마이라이프 기자로 활동하면서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안동김씨판서공종회 이사로 종사에도 열성적이다. 저서로 《내 나라 국보 탐방기》《조선 5대 궁궐 답사 I · II》 등을 출간했다.

총렬공(휘 방경) 일본원정 그 발자취를 찾아서 (2편)

■ 2023. 5.14(일) 셋째 날

08:10 우리는 다카시마에 있는 마쓰우라 역사민속자료관을 찾았다. 호텔에서 다카시마까지 50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 히라도성에 도착했는데. 일정상 오늘 점심은 11:30분 히라도 사이하테유메로망[平戸西端夢浪漫]에서 해산물 돈부리로 이른 식사를 했다.

【다카시마[應島(응도)] 마쓰우라[松浦(송포)] 역사민속자료관】

역사적으로 여몽연합군은 남송을 포함하여 1281년 2차 일본원정(辛巳再征)에 나섰다. 고려는 900척의 전함과 2만명의 병사를, 남송은 3,500척의 전함과 10만명의 병사가 참전한 대규모 원정이었다. 그러나 이 원정은 '가미카제[神風]'라 불리는 태풍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지금도 당시 침몰했던 목조선의 잔해(돛과 돛돌 기타)를 인양하고 있고, 역사민속자료관에서는 인양한 해저 유물들을 보존처리하여 전시하고 있다.



▲ 마쓰우라[松浦(송포)] 역사민속자료관

【히라도성[平戸城(평호성)]】

히라도성 입구는 예상외로 고색창연한 성벽 아래로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 성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요 전각은 천수각(天守閣)과 견주노(見奏櫓)와 회유노(懷柔櫓) 등 2개의 망루가 있다. 이 교수는 오늘 날씨가 참으로 좋다고 하면서 "14년 전 이곳을 찾았을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구경은커녕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오늘은 천수각도 올라가고 성내 산책도 하는 시간이 있으니 소주 한잔하면서 히라도성 앞바다의 멋진 풍경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네델란드벽과 계단길을 따라 성하마을에 도착하여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길거리 히라도 온천에서 족욕을 즐겼다.

【아리타[有田(유전)] 도자기와 도잔진재[陶山神社(도산신사)]】



▲ 도조 이삼평 비(陶祖 李參平 碑)

사가현 아리타는 조선인 도공 이삼평(李參平)에 의해 형성된 일본을 대표하는 도자기 마을이다. 지금 아리타에는 '도조 이삼평 요'와 그를 기리는 도잔진재가 있고, 산 정상에는 '도조 이삼평 기념비'가 있다. 도잔진재는 꺾어진 계단길을 따라 올라가면 도자 도리가 정문인 듯 서 있고 주위에 있는 각종 모형물도 도자기 작품인 것이 인상적이다.

- 일한우호의 관 '갤러리 백파선(百婆仙)' -

이마리에서 모든 일정을 끝내고 후쿠오카로 가는 길에 '갤러리 백파선' 앞에 이르렀다. 한복에 쪽찐 머리가 우리나라 할머니 상이다. 백파선(百婆仙)은 김해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도공인 남편 김태도와 함께 일본으로 끌려와 정교하고 화려한 채색을 사랑하는 일본 도자기의 원류 아리타 도자기 정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한다.



▲ 하카타의 밤

오늘 저녁은 후쿠오카 하카타 키소지[木曾路]에서 유명한 일식 요리인 가이세키 정식으로 하였다. 사시미가 4종류 나왔는데 타이[도미], 마구로[참치], 이카[오징어], 하마치[방어 준치]다. 가이세키 요리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고, 식재료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 조미료와 양념의 사용은 최대한 절제한 요리다. 술은

사케 다사이 45를 마셨는데 숫자 45는 쌀을 45% 남기고 도정하여 술을 담근 것이라 한다.

20:00경 호텔 니코 후쿠오카에 도착 여장을 풀었다. 이후 석한 대종회장님의 초청으로 부아이소하카타라는 술집에 모두 모여 뒷풀이 회식을 마음껏 즐겼다. 그렇게 후쿠오카 하카타의 밤은 깊어만 갔다.

■ 2023. 5.15(월) 마지막날



▲ 텐만궁[天満宮]

08:30분 다자이후[太宰府] 텐만궁[天満宮]을 관람했다. 다자이후는 여몽연합군의 일본원정 시 일본군 지휘소이고, 텐만궁은 학문의 신 '스가와라 미치자네[菅原道真]'를 기리는 궁(宮)이다. 다자이후

텐만궁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텐만궁 본전 지붕 위에 나무와 초화류로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있다.

【미즈키[水城(수성)]유적】

미즈키는 660년 백제가 멸망한 후 일본은 백제 부흥군을 돕기 위해 지원군을 보냈으나 백촌강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게 패하고 돌아왔다. 야마토 정권은 신라가 보복하여 일본으로 쳐들어올 것을 염려해 여러 방어시설을 구축하였는데 미즈키가 그중 가장 먼저 축조된 성이다.



【오노성[大野城(대야성)]】

오노성은 산성으로 백제인이 쌓았다. 중세 일본식 성과는 형태부터 다르다. 백제 부흥을 꾀하여 일어난 663년 백촌강 전투에서 백제 부흥군과 일본연합군이 나당연합군에 패하고 만다. 이 전투에 일본은 2만명의 병력과 180척의 전함을 투입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전투였다. 이 백촌강 전투의 패전으로 일본은 고대사가 종식되고 중세사가 시작되는 분수령이 되었다.

오노성을 답사한 후 오자키 보쿠조[尾崎牧場]에서 작게 썬 와규 사미시 일곱 종류 부위의 맛을 볼 수 있는 산마이[三味] 세트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원구사료관 도착 직전 석한 대총회장님은 선약이 있어 여행을 마치는 인사말을 남기시고 앞선 비행기로 먼저 입국하셨다.

【원구(元寇)사료관과 하코자키구[管崎宮(거기궁)]】

원구사료관은 히가시[東]공원 안에 있다. 이 공원 역시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공 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격전장이었다. 그래서 히가시공원에는 당시 상황(上皇)이었던 구메야마[龜山]와 여몽연합군의 침공을 예언한 남묘호렌게교인 니치렌종[日蓮正宗]의 창시자, 다이치렌 쇼닌[日蓮上人]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하코자키궁은 921년 건립되어 923년 현재의 장소로 옮겨왔다. 하카타만에서 본전까지 장대한 참배길이 이어지고 일본식 정원이 조성되어 사계절 내내 꽃이 만발하는데 특히 수국이 유명하다.

【소하라[麿元(추원)]원구고전장】

히라도와 다카시마를 초토화시킨 여몽연합군은 하카타만에 상륙한다. 그리고 소하라에 진을 치고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1차 원정 당시 연합군은 이곳을 기지로 삼아 다자이후로 진격하려 했다. 그러나 혼도와 의견 충돌로 전함으로 돌아갔다가 태풍을 만나 막대한 손실을 입고 퇴각하고 말았다. 만약 이때 김방경 장군 주장대로 전함으로 가지 않고 다자이후를 공격했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소하라는 지금 공원으로 변해 있다. 700여 년 전, 운명을 결정한 사건이 이곳에서 있었던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커다란 오석에 새겨진 글자 몇 자만이 흘러간 역사를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 소하라공원에 세워진 원구유적비 및 설명판

【원구방루(元寇防壘)】

원구방루는 일본 가마쿠라 바쿠후 시대 큐슈 하카타만 해안에 축조했던 길이 20km에 달하는 석축 방루이다. 1281년 2차 여몽연합군의 일본원정 때 연합군의 상륙을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몽고습래회사(蒙古襲來繪詞)』에도 당시의 원구방루가 잘 묘사되어 있다.



오늘 여러 곳의 일정을 소화하고 기내식까지 기다리기에는 모두가 출출할 것 같아 공항 근처에 아주 유명한 우동집이 있다는 석한 회장님의 소개로 들리게 되었다. 역시 소문난 집이라 그런지 일본 우동의 참맛을 볼 수 있는 집이었다.

18:00시 후쿠오카공항을 출발, 20: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번 여행에 금일봉을 창조해 주신 석한 대총회장님과 군사공파총회 준회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총렬공 할아버님 발자취를 찾아 떠난 일본 큐슈지역 답사 여행기를 마친다. “끝”

※ ‘총렬공(휘 방경) 일본원정 그 발자취를 찾아서’ 모두 1~2편으로 나누어 게재했다. 1편은 종보 8월 30일자 제160호 5면~7면에 실려 있다.

- 김윤만(문운공파총회 회장, 안동김씨역사연구회 회장) -

Advertisement for (주) 兩白 문화재 (Juhwa Culture).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Kim Jin-sik,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lists various cultural heritage services like Hanok, Sachal, and Jeosil. The address is 325-19(3F) Hwang-dong, Yeosu, Jeollanam-do.

안사연 창립 22주년 행사

지난 2001년 11월 11일 창립된 안사연(안동김씨역사연구회)이 어느덧 22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의미 있는 행사를 했는데 1부 행사는 조선의 5대 궁궐 중 창덕궁과 창경궁, 그리고 종묘를 답사하였고 2부 행사는 종로3가 한일옥 식당에 모여서 기념식을 갖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 궁궐 답사

■ 창덕궁

11월 11일(토요일) 오후 1시 창덕궁 앞에 20명이 집결하여 창덕궁-창경궁-종묘 순서로 답사하였는데 이날 답사의 해설은 올해에 '조선의 5대 궁궐' 책을 발간한바 있는 '신묵(臣默)'(문온공파) 안사연 학술이사가 맡아 인솔하였다.



▲ 답사 시작 전 창덕궁 정문 돈화문 앞에서 단체 사진 촬영

처음 답사를 시작한 창덕궁은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하여 경복궁을 지었지만 2대 정종이 다시 개성으로 환도한 후 3대 태종 이방원이 한양으로 재천도하면서 지은 두 번째 궁궐이지만 경복궁은 임진왜란 이후 고종 때까지 270년간 폐허로 버려진 상태였기에 사실상 조선의 정궁 역할을 한 궁궐이다.

또한 경복궁은 평면 지형에 좌우 대칭형 구조이나 창덕궁은 자연 지형에 맞게 한국적 궁궐로 지었기에 태종을 비롯한 역대 많은 임금이 선호하고 가장 많이 거처하였으며 이러한 역사성 문화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유일하게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궁궐이다.

창덕궁 입장하기 전 궁 밖에서 창덕궁 정문이 돈화문(敦化門)인데 5대 궁궐의 정문은 모두 'O化門'으로 돌림자를 갖고 있으니 (경복궁 光化門, 창경궁 弘化門, 경희궁 興化門, 덕수궁 仁化門)이었으나 폐쇄된 후 大安門을 大漢門으로 변경) 이는 임금이 열심히 노력해서 덕(德)으로 백성들을 감화시키겠다는 뜻이라는 걸 설명하였고

정문을 들어가 궁궐의 공간은 3문 3조로 되어있어 외문, 중문, 내문 3개의 문을 지나야 한다는 점과 그 사이 공간에 외조, 치조, 연조가 이어지고 뒤편에는 후원을 조성하였다는 것을 알아본 뒤 외조에 해당하는 궐내 각 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창덕궁 궐내 각 사는 여전히 많은 부분 복원되지 못하였는데 규장각과 검서청, 홍문관과 약방, 예문관을 찾아본 후 옛 선원전을 찾아 궁궐의 제사가 혼을 모신 종묘, 백을 모신 왕릉, 그리고 진영을 모신 선원전에서 이루어졌음을 설명하였다.

아쉽게는 선원전에 모셨던 역대 임금들의 어진(진영)이 6. 25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하여 모두 소실된 점이니 현재 태조 이성계와 영조의 어진만 온전히 남아있고 철종은 불에 타 반쪽

만 건졌으며 뒤늦게 세조의 어진 초본이 발견되어 27명의 국왕 중 4명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백성들이 억울하면 두드린다는 신문고가 사실은 두 번째 문 진선문에 설치되어 있어서 안으로 들어와 북을 울리기가 어려워 유명무실했다는 점과 역대 임금들의 즉위식은 정전의 문에서 간략히 이루어지니 인정문이 그것이며 신료들은 외행각 뜰에 정렬한다는 것도 새로운 사실이었다.

특히 창덕궁은 순종 황제가 거처하면서 정전인 인정전을 서양식(왜식?)으로 꾸며 마루를 깔고 전기를 연결하여 상들리에가 매달렸으며 화려한 커튼이 설치되는 등 개조되었으며 인정전 앞뜰 조정(朝廷)을 모두 파헤쳐 조경을 하는 등 왜곡시킨 것을 해방 후 다시 복원한 것이라는 것과

유일한 청기와 건물인 편전 선정전이 사실은 비좁고 수시로 혼전등으로 쓰이다 보니 침전에 해당하는 희정당을 편전으로 쓰게 되면서 옛 편전이라고 부른다는 점

희정당과 대조전은 1917년 창덕궁 대화재 때 모두 소실되어 경복궁의 강녕전과 교태전을 헐어와 지었지만, 희정당은 정체불명의 건물이 되었으며 대조전은 겨우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 희정당도 일제 강점기 때 근대식으로 차량을 영접하는 구조로 변경하고 정문 돈화문 안쪽의 진선문과 숙장문을 헐고 도로포장을 했다는 것이 뜻밖이었으니 지금 카페(휴게소)로 쓰는 건물이 순종 황제와 황후의 차량 주차 장소였다고 한다.

창덕궁의 동궁은 현재 후원과 창경궁으로 넘어가는 큰 도로가 되어 남아있지 않으며 세자가 공부하던 성 정각과 관물헌만 겨우 남아있어 아쉬웠으니, 뒤편의 대비전이라든지 영조를 낳은 보경당 등 복원하지 못한 건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궁궐 내 임금과 후궁, 대비의 처소지만 사대부집처럼 단청하지 않은 채 지은 낙선재, 석복헌, 수강재 3채의 건물이 현종이 간택에서 탈락한 경빈 김씨가 마음에 들어 지어준 것이라고 하며 수강재는 태종 이방원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지내던 수강궁인데 훗날 그 영역을 확대한 것이 창경궁이라는데 지금은 창덕궁에서 관리하고 있어 의아했다.

이곳 낙선재는 순종 승하 후 순정효황후가 내려와 지내다가 1966년 승하하였으며 이후 영친왕 이방자 여사와 시누이 덕혜옹주가 낙선재와 수강재에서 살다가 1989년에 몇 달 간격으로 모두 사망하면서 조선 왕실의 흔적은 끊어졌다.

아쉽게는 가을에 단풍이 멋지고 아름다웠을 후원(비원)은 워낙 매표 경쟁이 치열하여 안사연 20명이 입장하지 못하고 생략해야 했으니, 다음을 기약하면서 인접한 궁궐 창경궁으로 넘어갔다.

■ 창경궁

창경궁은 성종이 왕위에 올라 친정을 펴게 되면서 할머니 세조 비 정희왕후 윤씨와 숙모 예종비 인혜대비(안순왕후) 한씨, 생모 인수대비(소혜왕후) 한씨 등 세분의 대비를 모시기에 좁고 불편하여 옛 수강궁 터를 중심으로 궁궐을 확장한 것이었으니 그래서 창경궁을 효성으로 지은 궁궐이라고 한다.

그러나 창경궁이 완성되기 전에 할머니는 돌아가셨으며 이후 국왕들의 통치 시설들이 추가되면서 궁궐의 격을 갖추게 되었으나 그때만 해도 창덕궁과 창경궁을 분리, 구분하지 않고 동궐(東闕)이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담장으로 나눈 후에 별도의 입장권을 발행하고 있으니, 매표소에서 표를 사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연결하는 문 함양문으로 들어서야 했다.

창경궁은 순종황제가 창덕궁으로 옮겨온 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북쪽에는 식물원을 조성하고 수백 그루의 뱃나무를 심었으며 남쪽에는 동물원을 지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1911년에 창경원(昌慶苑)으로 격하시켜 놀이공원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창경궁이 알고 보면 역사적으로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귀국하였으나 두 달 만에 의문사 한 곳이며, 숙종비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죽어 시신이 나간 곳이며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8일간 신음하다가 숨진 곳이니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다.



▲ 창경궁 편전 문정전(당시는 정성왕후 혼전 휘령전) 앞에서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뒤주로 들어가게 했다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

하지만 아직 식물원과 동물원 영역은 복원이 요원하고 가운데 정전과 편전 그리고 왕과 대비, 왕비와 후궁들 처소 정도만 남아있어 매우 아쉬운 궁궐인데 연중 야간 개방으로 조명이 들어온 전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나마 위로가 된다.

창경궁 앞 높은 지형에 자리한 현재의 서울대학교병원은 과거 창경궁의 정원 함춘원이었으며 특히 사도세자의 사당 경모궁이 있던 곳인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 등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삼문 하나 남아있기도 하다.

■ **종묘**

일제는 순종이 승하하자 그가 계속 반대하여 추진하지 못하던 울곡로를 1926년 개통하여 창덕(경)궁과 종묘의 지맥을 끊었으니 지난 2022년에야 터널을 연결하고 그 위로 복토를 하여 지형을 살렸으니 실로 100년 만이다.

그러나 복토 후에도 과거 통행하던 창덕(경)궁과 종묘 간 통로는 막혀있으니 다시 종묘 정문까지 걸어야 함에 복토 후 생긴 사잇길을 걸어보면서 이동하였다.

그리하여 종묘 북쪽에서부터 서쪽 담벼락 바깥길, 소위 서순라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종묘 담장에 새겨진 각자(刻字)를 찾아보니 모두 73개소의 우리식 60갑자로 연도를 새긴 곳이 있으며 소화(昭和) 몇 년의 일본식으로 새긴 곳도 9곳이나 있다고 하는데 이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내 종묘의 정문 창업문을 들어서니 시간은 벌써 2부 행사 시간을 불과 30분 남긴지라 빨리 일부만 설명하기로 하고 재촉하여 진행하니 입구에 있는 망묘루와 공민왕 신당, 향대청을 설명하고

안으로 들어가 임금과 세자가 제향 전날 도착하여 대기하는 어숙실과 제향을 준비하는 공간 전사청 일대를 살펴본 후 현재 장기간 전체 복원 수리 중인 정전의 밖에서 종묘 정전과 그 앞의 공신당, 칠사당을 설명하였다.

특히 처음 정전으로 모셨다가 4대가 지난 후 불천위가 아니라면 다시 영녕전으로 모시는 절차적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종묘제

례와 제례악도 간단히 알아보니 종묘는 세계유산이고 제례(악)은 무형유산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화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렇게 중간에 변변한 휴식이나 간식도 없이 4시간도 부족한 일정으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를 답사하였으니 꼼꼼하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2부 행사장 한일옥으로 바삐 옮겨야 했다.

2부 기념행사

1부 궁궐 답사는 20명이 진행하였으나 행사장에는 추가로 20명이 합류하여 모두 40여 명이 자리를 꽉 채웠으며 특히 석한 대총회장님과 법혜스님 등 반가운 얼굴이 보여 안사연 창립 22주년 행사가 더욱 빛나게 되었다.

시간이 되어 윤만 안사연 회장이 개회 겸 인사말을 올렸으며 행사에 금일봉을 쾌척하신 석한 대총회장님과 법혜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말씀의 요지는 안사연의 창립을 축하하고 대총회와 안사연은 일심동체로 문중 발전에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관심사인 물계서원의 복설과 관련한 동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내년 초 학술대회도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법혜스님은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의 근황과 한국형 최신형 이시스함이 김시민 함으로 명명될 것임을 알려 모두가 호응하기도 하였다.



▲ 윤만 안사연회장 인사 말씀

지난 20년간 안사연을 이끌었던 영환 직전 회장은 마침 이탈리아를 여행 중이어서 태영 사무총장이 축하 메시지를 대독하면서 겸사겸사 공지 사항도 소개한 후에 준비된 음식과 축하의 잔을 나누는 만찬이 이어졌다.

원래 준비하기도 푸짐하였거니와 석한 대총회장님의 금일봉까지 보태어져서 이번 22주년 창립행사 만찬은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나 다소 쌀쌀해진 날씨에 오후 반나절 궁궐과 종묘 등 3곳을 과분할 만큼 집중하고 경청하면서 답사하신 안사연 회원님들이 자랑스럽기만 한 하루였다.



▲ 안사연 회원이신 석한 대총회장 인사 말씀

이제 한해를 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또 많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바 보다 충실한 계획과 안내로 안사연 활동이 이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안동김씨 문중의 발전과 번영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끝 -

- (文) 김신묵 안사연 학술위원장 -

제1회 지도의 날 행사

익원공 (휘 사형)께서 제작한 ‘강리도’를 통해 문화강국으로 도약



9월 1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지리·지도 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도의날제정추진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 한국지도학회 등의 공동 주최로

1402년에 익원공 김사형 등에 의해 제작된 세계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제1회 ‘지도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서혜란 전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진행으로 김일환 국립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의 환영사와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유홍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지도의날제정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현명 전 이라크대사의 ‘지도의 날’ 제정 경과보고에 이어 공동위원장인 양보경 전 성신여대총장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소개가 있었고, 이시영 전 주OECD대사의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혔다.



행사를 주도한 ‘지도의날제정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현명, 양보경)는 1402년 세계지도의 최고봉이며 최초의 한국전도를 보여주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통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이번에는 민간의 노력으로 행사를 개최했으나, 향후 국회입법화를 통해 ‘지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해 국가차원에서 기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미래를 짚어질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

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세계지리와 지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향후 사업으로 한국 최고 문화재라 할 수 있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해외공관이나 문화원 및 세종학당 등에 상설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2부 행사에서는 1980년대에 ‘바위섬’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가수 김원중이 세계가 찬탄하는 ‘강리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직접 작사·작곡한 ‘강리도’ 노래를 열창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도전시에서는 ‘지도의날제정추진위원회’ 고문인 김영환 총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 회장이 제작한 ‘강리도’ 사본 설명이 있었고, <1402 강리도> 저자 김선희 전 대사의 관련 외국 서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대동여지도’ 등 고지도 영인본과 박학선 사진작가 제작 ‘강리도’ 사본, 최숙의 화가의 ‘강리도’ 필사본 등이 전시됐다.

대한지리학회 정성훈 회장은 강리도 제작시기가 1402년 음력 8월 초인데 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초가 되며, 금년 6월 23일 강원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지리학회 세미나 특별세션에서 ‘지도의 날’을 매년 9월 첫째 토요일로 제정한다고 선포했다고 소개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원본은 전하지 않으며 다만 15세기 후반 조선에서 모사한 교토의 류코쿠대학 소장본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나머지 3본은 16세기 이후 모사한 것으로 일본 나라의 텐리대학교, 구마모토 혼묘지, 나가사키 혼코지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데 류코쿠대학본을 근현대에 모사한 것이다.



이날 참석자는 김인걸 국사편찬위원장, 김영환 총렬공기념사업회장, 이상태 한국영토학회장, 김영수 안동김씨익원공파총회장, 이간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장, 주성재 동해연구회장, 한병길 한·중남미 협회장, 김태영 안동김씨대중회사무총장, 고희일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권영창 안동권씨대중회장, 선정규 전 고려대부총장, 김일기·허우궁·이정록 전 대한지리학회장, 김윤만 안동김씨역사연구회장 및 회원 35명과 지리·지도 학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23년도, 대중회비 납부협조 요청

대중회 운영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속적으로 찬조금을 협찬하여 주시는 종친여러분, 그리고 대중회비를 납부하여 주신 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친여러분의 성금과 회비는 대중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혹여 대중회 회비를 깜박 잊으시고 아직 납부하지 못한 임원 종친들께서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예 금 주 : 안동김씨대중회

 安東金氏大宗會事務處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02)2244-3717 fax 02) 2243-1073